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1급 장애인 안순자씨 40년만에 손 움직여 3년전 불법 인연... 매일 관음 정근 끝에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불자가 있다. 본당 장애인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안순자(40)씨. 안씨는 신체의 어느부분 하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적장애인이자 장애인이다. 장애가 깊어질수록 몸이 갈수록 사지가 굳어졌고 가난한 살림에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홀어머니의 도움없이 아무것도 먹을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단지 생각하는 것만은 정상이어서 40년 세월을 한탄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희망없이 살던 안씨가 요즘은 새로운 삶을 살고있다. 관세음보살을 찾았기 때문이다. 안씨는 매일 새벽 2시간씩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하루에 딱히 1만번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지난해 음력 3월 초하루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했을 6백만번을 훨씬 넘었다. 안씨는 정근 이외에 더이상 아무런 기도도 할 수가 없다. 다른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안씨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은혜로 기도하는 그녀의 발원은 ‘혼자서 밥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

“기도 시작 8개월째였습니다. 갑자기 손을 움직이고 싶더군요. 마침 옆에 있는 그릇의 과자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 과자를 혼자 힘으로 먹었습니다.”

그날 안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의지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문득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씨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전. 재가불자활동을



◇시지가 굳어 밥먹고 화장실 가는게 꿈이었던 안순자씨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근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자 평소 도움을 주던 신우씨 보살과 기뻐하고 있다. 박재연 기자

“부처님과 한마음 될 때 일어설 겁니다”

펼치던 서울 방생선원 선재스님과 신도 신우씨보살을 만나면서 부터다. 당시 스님과 신보살은 안씨 집을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봄, 스님이 관음기도를 제안했다. 처음 접한 기도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1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스님과 신보살의 정성에 안씨도 스스로 발심을 내었다.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순자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디다.기도를 통해 몸을 움직일수 있다는 힘을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아직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수는 없어도 스님의 지도에 잘 따라주고 있어 발원 성취는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주 서울에서 두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오는 신보살은 오히려 안씨가 ‘배울점 많은 훌륭한 도반’이라고 소개한다. 스님과 신보살은 안씨를 체크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려준다.

기도하기 전만해도 안씨는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 짜증으로 살았었다. 신령이 에민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남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안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쁘다면 그대로 잠에 들고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한다. “나이 40에 제 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단지 밥먹고 화장실만 갈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그때에는 마음속에 간직했던 시를 책으로 펴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 발원은 부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날 희망 될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교정기관·불자 연합회 창립

18일, 자매결연 직업훈련등 재소자포교 전개

전국 교정기관 불자 연합회(회장 오희창,안양교도소 소장)가 오는 18일 안양 문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날 창립하는 교정연은 전국 32개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내에서 활동중인 불자들의 연합단체로 지난달 1일 열린 전국교정시설 불교담당자 연수법회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을 준비해왔다.

교정연은 창립 취지문에서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자비정신으로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혀 교정연 창립이

재소자 포교에 한층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정연은 앞으로 ‘재소자들의 불자화,재범을 제로화 운동’을 펼쳐 가며 이를 위해 △교정기관과 포교사 파견 △재소자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지원 △출소후 취업알선 및 불우재소자 가족돕기 △재소자 복지사업 지원 및 인공자 자매결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사회의 도덕적 방패를 잃고 범군인 동맹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추경상황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도덕 윤리의식이 퇴조되고 생명경시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키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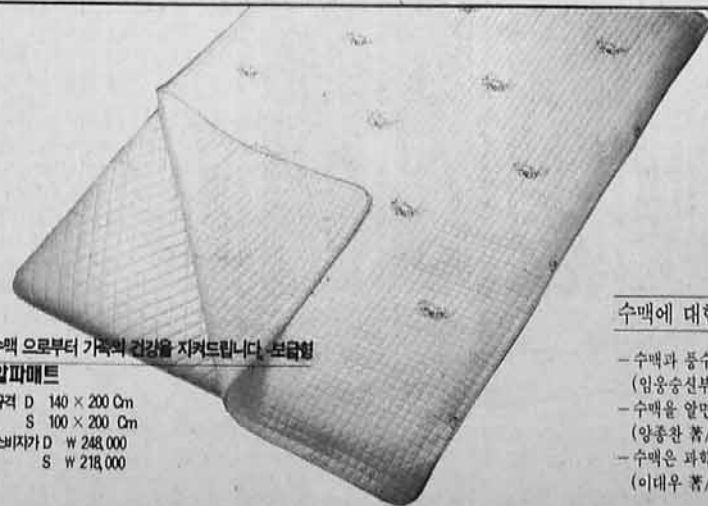
질병의 큰 원인은 “수맥”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용 건강매트 - 알파매트

..... 수맥을 무료로 봐드립니다. 부담없이 불러주십시오.

..... 수맥파를 방지하시면 하시는 일의 능률도 상승됩니다.

..... 특히 노인, 어린이, 수험생, 임산부, 환자들은 꼭 수맥을 방지하십시오.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급형 알파매트
규격 D 140 x 200 Cm
S 100 x 200 Cm
소비자가 ₩ 248,000
S ₩ 218,000

새해 문화재 예산 7백29억원

금년보다 18% 증가 경천·원각사탑 보수 계획 빠져

내년도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이 지난 2일 7백29억7천3십2만 6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94년도 예산에 비하면 18%가량이 상향조정된 예산이다.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은 크게 기관운영, 고도정비, 문화재보존, 공영원정비의 네분야로 나누어 집행된다. 불교 문화재

보존·수리와 관련된 문화재 보존 부문에 책정된 예산 4백 77억5천7백1십6만2천원은 국·보물 문화재보수와 시도별 문화재보수국고보조사업에 쓰이게 된다. <관련기사 13면>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파악하고 예산확정할 불교문화재 보존·보수 건수는 5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훼손이

극에 달한 경천사탑과 원각사탑의 문화재 보수·보존 예산은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문재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책정된 내년도 예산만으로 기존의 문화재 관리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해외 종교인 대회 열기로

종교인협, 내년 8월15일 평화통일 콘서트도

종교인 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 김상근목사, 김현교무, 함세웅신부)는 지난달 29일 평은사 선불당에서 제8차 종교인 협의회 대회를 열었다.

종교인협의회는 이날 모임에서 95년도 통일사업을 논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회를 95년 8월 15일을 기해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종교인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95년도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표자 회의의 △6.25를 전후하는 평화통일 주간 마련 △평화통일 콘서트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회 마련등의 계획안이 확정 발표됐다.

32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방 지부장과 대학회장 1백5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평가회를 갖고 33년차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한편 대불련은 18일 대불련 발전에 공로가 인정을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교화단 준비사업 품수식을 거행한다.

한·중·일 불교교류 북경서 준비모임 가져

내년 5월에 열리는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위

한 제 2차 준비 모임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이번 준비 모임에는 한국측에서 서봉(태고종 총무원장) 문덕(천태종 총무원장) 지광(진각종 총무원장) 총파(관음종 총무원장) 시험(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도원(진각종 교육부장) 도원(천태종 총무원장) 스님 등이 참석한다.

종단협회장에 월주스님

지난 9일 만장일치 선출

한국불교 종단협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새해 사업안 심의

대불청이사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배영진)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충북 증평군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제9차 중앙이사회의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이사회의에서는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 및 행사를 심의했다.

또한 대불청은 16·17대 중앙회장 임기중 불청 활동을 같이했던 회원들을 위한 부부동반 송년회도 가졌다.

20일부터 특차모집

동대 입시요강 발표

종립 동국대학교는 내년 1월 2일부터 95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앞서 특차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원서를 교부, 접수하며 29일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서울캠퍼스가 특차모집인원 63명을 포함 총 2천8백50명을, 경주캠퍼스가 특차 13명을 포함 1천9백50명의 95학년도 신입생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정기모집은 95년 1월2일부터 4일까지 원서를 접수 1월9일 전형에 실시하고 1월 10, 11일 양일에 걸쳐 면접고사를 치른다.

한편 95학년도부터 서울캠퍼스(아)에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영어중문학과 등 3개과, 경주캠퍼스에 국악과, 사회체육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총 6개학과가 증설됐다.

동대생 10명에 장학금

경주 고불선원

경북 경주 소재 고불선원(원장 백운)은 지난 2일 대법당에서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국대 재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불심이 돈독한 학생을 선발, 총 10명에게 각각 2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원장 백운스님은 “앞으로 재원을 확충해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란다 난민에 성금

신탁은행 행우회

서울신탁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김경태)는 10일 본점대강당에서 3백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스님을 법사로 초청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불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트란다난민돕기 보시금을 모아 동산반야회에 전달했다.

구독신청:737-8881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遠赤外線 線狀發熱體 使用

자매품

VIP 골드세트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소비자가 ₩ 1,310,000 규격 140 x 200cm

골드카펫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자카드 원단 소비자가 ₩ 765,000 규격 150 x 220cm

엔젤랜드 수맥차단 소비자가 ₩ 148,000 규격 100 x 120cm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

- 모집지역 전국 (시, 군, 구, 읍 단위)
- 대리점 자격 보증금 없음 초도상품대 가능자(무점포 가능)
- 특약점 자격 판매 유경험자(초보자도 가능) 소자본·고소득(무점포 가능)

문의전화 (02)649-1781,645-8180

유희자성기업

서울 강서구 동촌 2동 513-21 희원빌딩 301호
TEL. (02)649-1781 (대)/FAX (02)645-8180

